

#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 및 추후 연구과제\*

서미정(徐美正)\*\*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학령전 아동부터 고등학교 청소년에게 실시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 176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및 처치 방법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처치 특성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았고,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일반집단으로부터 표집되었다.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은 공격성의 예방과 치료 목적에서 유사한 비율로 실시되었으며, 아동과 청소년은 일반집단보다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가 더 많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프로그램의 회기는 길지만 회기당 소요시간은 짧고, 프로그램 처치의 간격 또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처치 방법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처치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차원적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관찰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있었고,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설문조사방식을 활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현적 공격성의 감소에 치중하여 실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확대 및 균형있는 연구방법의 요구 등 향후 프로그램의 연구과제가 제안되었다.

주요어 :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중재 프로그램, 연구동향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53-C00078]

\*\* 제1저자(교신저자), 부산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상담부 전임상담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 10명 중 4~5명이 자살 생각을 한다는 최근 조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는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자살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피해 중,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는 현 시점에서(민중의 소리, 2013; 조선일보, 2012), 그 대응책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또래괴롭힘, 집단따돌림, 왕따 등으로 불리어지는 심각한 형태의 공격행동이 사회문제로 주목 받아오면서 그 해결을 위한 연구의 관심을 지속시켜 왔다.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지는 공격성(Berkowitz, 1993; Olweus, 1978)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공격성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현상의 분석과 공격성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공격성의 특성 분석은 실태조사, 원인 및 결과 요인의 탐색(김지현, 2006; 서미정, 2013), 중단적 변화양상 및 변화의 예측요인 탐색(노연경, 홍세희, 2009; 서미정, 2010, 2012; Côté, Vaillancourt, Barker, Nagin, & Tremblay, 2007; Martino, Ellickson, Klein, McCaffrey, & Edelen, 2008) 등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에 따라 공격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통합하는 연구들도 국내·외에서 주목받아 왔다(서미정, 2011; Archer, 2004; Archer & Coyne, 2005; Björkqvist, 1994; 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공격성의 예측요인 및 부적응적 결과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한 연구의 결과들은 공격성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공격성을 통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이후 발달단계에서 비행, 약물사용, 폭력 등 다른 유형의 외현화 행동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서미정, 2009; Brook, Whiteman, Finch, & Cohen, 1996; 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의 장기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지금까지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의 양적인 축적에도 불구하고, 그 동향을 분석하는 데는 비교적 적은 연구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선행된 연구들은 국외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거나(강명숙, 2007), 학령기 아동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유수정, 2011). 하지만 외현적 공격성은 만 2세 경에 정점에 도달하고, 일부 유아들의 공격성이

아동기까지 지속된다는 연구결과(Côté, Vaillancourt, LeBlanc, Nagin, & Tremblay, 2006)와 관계적 공격성의 형태도 유아기에 나타난다(Crick, Casas, & Mosher, 1997)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기부터 공격성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의 실재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학령전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확장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쟁점을 파악하고, 학교 현장 및 상담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는 데 주목하였다. 또한 공격행동의 가해자(Coie & Dodge, 1998; Ladd, 2005)와 피해자(최운선, 2005; Card, Isaacs, & Hodges, 2007) 모두 부적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주된 초점이 되고 있는 공격성의 가해행동 수준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의 조직된 집합체를 말하는데(Royse, Thyer, Padgett, & Logan, 2001), 활동내용 그 자체와 함께 목적, 목표, 대상자, 방법, 실행시기, 과정,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구성요소는 연구자의 관심과 접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동향분석의 기준 또한 연구자마다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 실험집단의 구성, 실험집단의 일정과 같은 처치 특성 요인과 적용된 이론적 접근, 매체 활용,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 및 공격성의 측정방법 등 처치 방법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학령전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비교적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을 유아, 초·중·고등학생 아동 및 중·고등학생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연령별로 어떤 처치 특성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의 균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더욱 보완되어 진행될 부분을 알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가해 및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보다 폭넓은 실천적 방법의 도출을 기대해 본다.

## 2. 선행 연구고찰

### 1) 공격성의 정의, 유형 및 발달에 따른 특성

#### (1)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의도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되며(Berkowitz, 1993; Olweus, 1978), 연구자의 접근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있다. 먼저 공격 가해자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를 모두 고려하면 공격성의 유형은 신체적 공격성과 심리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Olweus, 1978). 즉 신체적 공격성은 차기, 때리기 등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해를

주는 행동이며, 심리적 공격성에는 놀림, 배척, 협박하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숨기는 것과 같이 타인에게 신체적이지 않은 해를 주는 행동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공격 피해자가 입은 손상 및 가해자의 의도가 신체적인 것인지, 심리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공격행동이 가해지는 방법이 직접적인지, 제 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해지는지에 따라 직접적인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Björkqvist, Ekman, & Lagerspetz, 1982).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성에는 차기, 때리기와 같은 행동들이 포함되고, 직접적인 언어적 공격성은 별명 부르기, 언어적 협박과 심술궂은 놀림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된다. 간접적 공격성은 학생들이 소속된 또래집단에서 특정한 한 학생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불쾌한 소문을 퍼뜨리는 형태이다.

공격행동의 목적에 따라 구분해보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적극적 공격성과 타인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Dodge, Coie, & Lynam, 2006).

공격성을 표현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연구자들(서미정, 2012; Crick et al., 1997)은 신체적 공격, 언어적 협박 등 명백하게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와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집단에서 배제하기와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또래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서 전자는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 후자는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불리어진다(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공격성(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on, & Gariépy, 1989) 및 간접적 공격성(Björkqvist, Lagerspetz, & Kaukiainen, 1992)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각 용어는 조금 다른 행동을 의미한다(Xie, Cairns, & Cairns, 2005). 다만 공격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해를 주는 방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처럼 공격성을 유형화하는 기준은 접근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구분을 따르고자 한다. 외현적 공격성은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포함되고,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간접적 공격성 등의 용어를 포괄하되 관계를 손상시킬 목적에서 일어나는 공격행동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 (2) 발달에 따른 공격성

공격성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행동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연령별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공격성의 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유아들은 자신의 주장을 비언어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므로 신체적 공격성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대체로 2세 전후 유아들은 놀잇감이나 공간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적 공격성이 나타나고, 2세에서 3세는 물리적 공격성을 보이며,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따라 언어적

공격성이 더욱 우세하게 된다. 유아기 동안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공격성 등 외현적 형태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고선옥, 전경아, 2010; 김민효, 2009; 이동진, 채수경, 2010), 이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할 때 부모나 교사의 관찰이 용이한 외현적 공격성에 더욱 치중한 것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학령 전기 유아들의 관계적 공격성을 교사와 또래평가로부터 수집한 연구자들은 3세부터 5세만큼 어린 연령의 유아들도 또래관계를 손상시키는 형태의 공격성을 사용한다고 하였다(Crick et al., 1997).

시간 흐름에 따라 공격성이 변화하는 패턴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까지 남, 여학생 모두 신체적 공격성은 11세부터 15세까지 증가하다가 18세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보고되었다(Karriker-Jaffe, Foshee, Ennett, & Suchindran, 2008). 또한 미국의 6학년부터 8학년까지 매학기마다 측정된 신체적 공격성은 시골과 도시 두 표본 모두 6학년에서 7학년까지 증가하다가 8학년에서 약간 감소하는 역 U자 패턴이 나타났다(Farrell et al., 2005). 네덜란드의 4세 유아부터 18세 청소년까지 2년 간격으로 측정된 외현적 공격성은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3). 한국에서는 청소년패널자료로 조사된 외현적 공격성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증가하였고(서미정, 2009),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감소하였다(김동기, 홍세희, 2007).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통해 외현적 공격성은 대체로 학령 전기에 많이 사용하고, 학령기부터 초기 청소년까지 증가하다가 후기 청소년까지 감소하는 양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현적 공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변화도 탐색되어 왔다. 관계적 공격성은 4학년에서 6년까지 증가하는 형태가 제시되었고(Cairns et al., 1989), 4학년 동안 여학생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Murray-Close, Ostrov, & Crick, 2007). 또한 11세부터 18세까지 시골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Karriker-Jaffe et al., 2008)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14세에 정점에 달하고 이후 감소하는 곡선의 경로가 발견되었다. 관계적 공격성의 다양한 변화형태를 분석한 연구자들(Côté et al., 2007)도 있는데, 이들은 4~8세 아동의 2/3 정도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나머지 1/3 정도는 중간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는 두 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을 6학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추적하여 관계적 공격성의 변화하는 패턴을 탐색한 연구(서미정, 2012)가 있는데, 관계적 공격성은 낮은 수준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 아동 후기동안 관계적 공격성의 사용이 많은 아동들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은 학령 전기에 비해 언어능력 및 사회인지능력이 발달된 아동 후기와 청소년기에 더욱 현저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서미정, 2012; Côté et al., 2007; Karriker-Jaffe et al., 2008).

## 2)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의 분석 기준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격성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의 다양한 처치 변인들을 크게 처치 특성과 처치 방법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분석 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변인

공격성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게 된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두 참여시키거나(김주영, 2011),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김지영, 2011), 여학생만을 참여시키기도 한다(안자은, 2006).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재 프로그램은 각 연령대마다 발달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접근이 요구된다(Greenberg, 2003).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메타분석한 연구(유수정, 2011)에서는 학령기 아동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합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중요한 맥락적 환경으로 부모나 교사가 포함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격성에는 개인적 성향이나 특성뿐 아니라 부모나 교사의 요인이 중요하게 관련되기 때문에(김지현, 2006; 서미정, 2011; Martino et al., 2008), 이들의 변화 없이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공격성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동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부모 개입의 중요성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연구들은 부모교육 차원에서 중재하는 프로그램(김민호, 2009)과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정숙, 정은선, 김경선, 박지영, 박희애, 서보람, 2008; 이정혜, 2004)도 있다. 연구참여자를 어디서 모집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성격을 예측하고 연구결과 해석에도 고려되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반집단에서 참여자를 모집할 경우 보통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하게 되고, 보호관찰소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시설에서 모집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처치 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마다 다양한 실험설계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즉 실험집단만 구성할 수도 있고(이동진, 채수경, 2010), 실험 및 통제집단 또는 비교집단 설계를 계획할 수 있다(고선옥, 전경아, 201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집단의 무선배정 여부 또한 연구의 특성이 될 수 있다. 공격성 수준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처치 프로그램이 예방적인지 또는 치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 때 치료를 위한 목적에서 실험집단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검사도구는 대부분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구성하겠지만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폭력의 가해성향이 높은 집단을 선발하기도 한다(허승희, 최태진, 2008). 공격성, 비행 및 ADHD 등은 각기 다른 증상을 나타내지만 포괄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을 치료하기 위해 실험집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공격성뿐 아니라 비행, 학교폭력의 가해 수준, ADHD 등을 함께 포함시켜 살펴보기로 하겠다.

공격성 감소를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상황과 목적에 맞게 실험집단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집단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연령,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사나 실무자의 경험, 집단 형태와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집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강진령, 연문희, 2009). 일반적으로 5~8명 정도가 보통이고,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학급 단위의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된다면 30명 내외로 구성할 수도 있다. 연령이 어릴수록 프로그램 운영자가 유아나 아동을 통제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집단의 크기가 작은 것이 보편적인데, 이는 교사의 학생 통제능력도 집단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Gazda, 1989).

회기의 지속기간은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Greenberg(2003)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회기는 8회기로 보고 있으나, 집단의 목표가 자아존중감 향상이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성장집단의 경우라면 8~10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공격성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의 행동문제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비교적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학령전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광범위하다는 점과 공격성의 감소라는 개입 목표를 고려하여 회기 수가 짧은 5~7회기, 집단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회기 수를 보이는 8~10회기, 11~14회기, 15~20회기, 21회기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한 회기 시간과 실험처치 간격은 실험집단 참여자의 주의 집중시간의 길이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한 회기의 시간은 더 짧고 더 자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주 2~3회 모여서 회기당 30~40분, 초등학교 고학년은 회기당 45분에서 60분이 적당하다고 한다(강진령, 연문희, 2009). 중학생은 주 1회, 회기당 60분에서 90분 정도, 고등학생은 주 1회, 회기당 2시간까지도 진행이 가능하다.

## (2)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처치 방법에 따른 특성

프로그램의 처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이론적 접근이나 매체 및 보조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치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공격성 감소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중재 접근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유아나 아동 초기 공격성의 감소를 위해서는 놀이, 미술, 독서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용한데, 연령별로 많이 사용하는 특정 매체나 이론적 접근을 알아보려고 한다.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주제는 공격성에 대한 위협요인이나 보호요인들이 반영되어 구성된다. 예를 들어, 공격성은 분노와 같은 정서조절 능력의 결핍으로 야기되기 쉬우므로(서미정, 2011; 주지영, 2005; 한유진, 2006), 분노조절이나 정서조절 향상을 위한 처치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다(류순정, 2010; 정이원, 2010).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연구마다 다를 수 있다. 즉 공격성을 관찰하기도 하고, 자기보고나 교사와 부모 등의 성인이 평가하여 조사되기도 한다.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등 어떤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공격성 예방 및 중재를 위해 어떤 형태의 공격성에 더욱 초점을 두는지 파악할 수 있다.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은 현저하게 나타나는 발달적 시기에서 성별 차이가 있지만(Archer, 2004), 남, 여 학생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공격성이 다른 부적응적 결과들과 연결되기 때문에(서미정, 2011), 공격성의 감소를 위해서는 두가지 형태 모두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감소시키고자 하는 공격성의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공격성의 형태를 알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학령전 아동부터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해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13년간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은 1990년경 부터 공격성에 대한 실태나 관련성 연구들이 축적되어 오면서(서미정, 2011), 그 결과들이 반영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공격성 중재의 대상을 학령전 아동부터 고등학교 청소년으로 설정한 것은 성인기 행동문제의 전조로서 아동과 청소년기 공격성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격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종 선정된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출판년도, 출판형태 및 연구자 전공별 분포를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논문의 출판년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5편 이내로 발표되던 논문이 2003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9편에서 25편으로 나타나, 200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대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학문적 관심의 증가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연계를 실천하는 연구의 활성화를



이 끝났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표 1에서 연구논문의 출판형태를 보면, 총 176편 가운데 학술지 논문이 전체의 19.9%(35편), 석사학위논문이 75%(132편)를 차지하였으며, 박사학위논문은 5.1%(9편)에 그쳤다. 즉 공격성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2/3 이상이 석사학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담(임상심리) 및 심리치료 전공자의 논문이 60.8%(107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동(유아교육) 및 청소년 전공의 논문이 11.4%(20편)로 그 뒤를 따랐다. 이 외에도 교육학, 특수교육, 사회복지 및 간호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한 학문적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출판년도	2000	3	1.7
	2001	5	2.9
	2002	4	2.3
	2003	9	5.1
	2004	10	5.7
	2005	18	10.2
	2006	9	5.1
	2007	21	11.9
	2008	25	14.2
	2009	19	10.8
	2010	24	13.6
	2011	17	9.7
	2012	12	6.8
	<b>계</b>	<b>176</b>	<b>100</b>
출판형태	학술지 논문	35	19.9
	석사학위논문	132	75.0
	박사학위논문	9	5.1
	<b>계</b>	<b>176</b>	<b>100</b>
연구자 전공	상담(임상심리) 및 심리치료	107	60.8
	아동(유아교육) 및 청소년	20	11.4
	교육학 및 심리학 <sup>a</sup>	18	10.2
	특수교육 및 초등교육	10	5.6
	사회복지	8	4.5
	간호학	5	2.8
	기타 <sup>b</sup>	8	4.5
	<b>계</b>	<b>176</b>	<b>100</b>

<sup>a</sup>발달심리 등 상담심리 및 임상심리를 제외한 심리학의 세부 전공이 포함됨

<sup>b</sup>생물학 등의 전공(n=2)과 연구자의 전공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논문(n=6)이 포함됨

## 2. 자료의 수집 및 선정

연구물의 수집을 위해 국회전자도서관,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등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논문 수집 시 검색어는 ‘공격성’, ‘또래괴롭힘’,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집단따돌림’,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수집된 총 238편 가운데 다음의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총 176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첫째,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이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거나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어야 한다. 이 때 공격성 또는 학교폭력의 가해행동<sup>1)</sup>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심리학적 접근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요가, 원예활동, 요리, 스포츠 및 치료도우미견 프로그램 등은 심리치료 및 상담과 발달을 증진시키는 활동의 중간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접근들을 활동이 보다 강조되는 영역으로 간주하여 제외시켰다. 셋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문이 제공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기준 외에도 동일 연구자가 학위논문, 학술지 및 학술대회 등에 중복으로 발표한 논문은 출판년도가 가장 빠른 논문 한 편만을 포함시켰다.

## 3. 분석 기준 및 자료분석방법

최종 선정된 논문들의 동향은 크게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과 처치 방법적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에는 연구참여자, 실험집단의 구성 및 실험집단의 일정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의 처치 방법에 따른 특성은 프로그램이 어떤 이론적 접근을 따르는지, 어떤 매체나 보조자료를 활용하는지, 사용한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격성의 측정방법, 공격성의 유형, 프로그램의 효과 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및 처치 방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 프로그램 처치의 효과를 얻는 중속변인은 공격성 및 학교폭력의 가해행동만으로 제한함. 학교폭력의 경우 대상 논문의 연구자가 내린 조작적 정의와 사용된 측정도구에 따라 외현적 형태인지 관계적 형태인지를 본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하였음.

### Ⅲ. 연구결과

#### 1.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분석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을 연구참여자, 실험집단의 구성 및 일정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특성으로 성별, 연령 및 모집처별 분포를 파악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령 범주를 학령전 아동은 유아, 초등학생은 아동,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범주화한 후 실험집단의 구성 특성, 즉 실험설계 형태, 실험집단 선발방법 및 실험집단의 크기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의 일정과 관련한 특성으로 총 회기 수, 회기별 소요시간 및 처치간격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의 성별, 연령 및 모집처별 분포를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표본의 성별은 과반수 이상(63.6%)이 남, 여학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1%(37편)이고, 여학생만 대상으로 한 연구는 5.7%(10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4.5%(96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중학생과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각 21%, 11.9%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함께 참여시킨 논문은 13편(7.4%)이며,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편(1.7%)에 그쳤다. 그리고 부모가 참여한 논문의 경우, 부모만 참여하거나 학령전 아동 및 초등학생과 함께 부모를 참여시킨 논문이 각 1편씩 총 3편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을 어디에서 모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표집한 논문이 79.5%(140편)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호관찰소, 소녀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에서 대상 아동 및 청소년들을 표집한 논문이 13편(7.4%)이었고,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교실 등에서 표집된 논문 또한 13편(7.4%)으로 나타났다. 이 외 복지시설이나 그룹홈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이 7편(4%)으로 나타났다.

&lt;표 2&gt; 연구참여자의 성별, 학년 및 모집처

구분	항목	빈도	%
성별	남학생	37	21.0
	여학생	10	5.7
	남학생+여학생	112	63.6
	보고 안함	17	9.7
	<b>계</b>	<b>176</b>	<b>100</b>
연령	학령전 아동	21	11.9
	초등학생	96	54.5
	중학생	37	21.0
	고등학생	3	1.7
	중학생+고등학생	13	7.4
	기타 혼합연령 <sup>a</sup>	3	1.7
	부모참여 <sup>b</sup>	3	1.7
<b>계</b>	<b>176</b>	<b>100</b>	
모집처	일반(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140	79.5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	13	7.4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	13	7.4
	시설(복지관, 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7	4.0
	기타 <sup>c</sup>	3	1.7
<b>계</b>	<b>176</b>	<b>100</b>	

<sup>a</sup>학령전 아동+초등학생(n=1), 초등학생+중학생(n=1), 초등학생+고등학생(n=1)

<sup>b</sup>부모(n=1), 학령전 아동+부모(n=1), 초등학생+부모(n=1)

<sup>c</sup>특수교육센터(n=1), 상담센터(n=1), 축구부(n=1)

## 2) 실험집단의 구성과 관련된 특성

분석대상 논문들이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사용한 실험설계 유형, 실험집단 선발방법 및 실험집단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 범주는 학령전 유아(21명), 초등학생 아동(96명), 그리고 중, 고등학생은 청소년(53명)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부모가 참여(3편)하였거나 다른 혼합연령(3편)이 포함된 논문을 제외하고 총 170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실험설계 형태를 보면, 유아, 아동 및 청소년 모두 각 연령집단의 2/3 이상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설계를 사용하였고, 실험집단만으로 구성된 논문은 전체 170편 가운데 28편(16.5%)이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및 비교집단으로 설계한 논문 총 142편을 대상으로 집단을 무선 배정했는지를 살펴보면, 유아, 아동 및 청소년 모두 무선 배정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무선 배정

을 하지 않은 논문이 유아는 6.3%에 불과한 반면 아동과 청소년은 각각 42.5%, 30.4%를 차지하였다.

실험집단을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선발했는지를 살펴보면, 비행, ADHD, 학교폭력 가해 수준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나 공격성 수준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을 참여시킨 논문이 전체 170편 가운데 99편(58.2%)이었고, 공격성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집단은 40%(68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유아들은 일반집단과 공격성 고수준 집단이 각각 11편(52.4%)과 10편(47.6%)으로 나타나 유사한 빈도이지만 예방 차원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이 조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은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53.1%(51편), 일반집단이 43.8%(42편)를 차지하여 공격성의 치료 목적 못지 않게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의 경우는 71.7%(38편)가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8.3%(15편)의 논문에서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행동문제 수준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을 실험집단으로 선발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는 공격성, 분노, 비행 및 ADHD 등을 측정한 논문이 94편 가운데 76편(80.8%)으로 가장 많았는데, 유아는 100%(10편)이고, 아동과 청소년은 각각 88.8%, 60%가 이러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선발하였다. 교사나 보호관찰관 등이 비행이나 폭력 수준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을 추천한 논문이 총 15편(16%)을 차지하였는데, 이 중에서 3편은 아동, 12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 소수이지만 사회성 측정법, 교우관계검사 등을 사용한 논문은 3편이며,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을 선발할 때 대부분 외현화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도구를 통해 선발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교사나 보호관찰관 등의 추천에 의해서도 선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의 크기는 5명 이하, 6~10명, 11~15명, 16~20명, 21~30명, 31~50명, 51~121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6~10명이 57편(33.5%)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이 11~15명(22.4%)이고, 16~20명이 22편(12.9%)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연령별로는 유아의 경우 총 21편 가운데 38.1%(8편)가 16~20명으로 구성하였고, 5명 이하의 소규모도 23.8%(5편)를 차지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6~10명이 각각 37.5%, 35.8%로 가장 많았으며, 31~50명은 아동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험집단의 크기는 연령별로 단일사례부터 100명 이상까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3&gt; 연령별 실험설계, 실험집단 선발방법 및 실험집단의 크기

빈도(%)

구분	항목	연령범주			전체
		유아	아동	청소년	
실험설계	실험	5(23.8)	16(16.7)	7(13.2)	28(16.5)
	실험+통제	<b>14(66.7)</b>	<b>76(79.2)</b>	<b>43(81.1)</b>	<b>133(78.2)</b>
	실험+통제+비교	1(4.8)	0(0.0)	0(0.0)	1(0.6)
	실험+비교	1(4.8)	4(4.2)	3(5.7)	8(4.7)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집단무선 배정여부	무선배정	<b>15(93.8)</b>	<b>45(56.3)</b>	<b>31(67.4)</b>	<b>91(64.1)</b>
	무선배정 아님	1(6.3)	34(42.5)	14(30.4)	49(34.5)
	보고 안함	0(0.0)	1(1.3)	1(2.2)	2(1.4)
	계	16(100)	80(100)	46(100)	142(100)
실험집단 공격수준	공격성 고수준 집단 <sup>a</sup>	10(47.6)	<b>51(53.1)</b>	<b>38(71.7)</b>	<b>99(58.2)</b>
	일반집단	<b>11(52.4)</b>	42(43.8)	15(28.3)	68(40.0)
	기타(배척아동) <sup>b</sup>	0(0.0)	3(3.1)	0(0.0)	3(1.8)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실험집단 선발방법	공격성, 비행, ADHD 검사	<b>10(100)</b>	<b>48(88.8)</b>	<b>18(60.0)</b>	<b>76(80.8)</b>
	교사, 보호관찰관 추천	0(0.0)	3(5.6)	12(40.0)	15(16.0)
	사회성 측정, 교우관계검사	0(0.0)	3(5.6)	0(0.0)	3(3.2)
	계	10(100)	54(100)	30(100)	94(100)
실험집단 크기	1~5명	5(23.8)	10(10.4)	2(3.8)	17(10.0)
	6~10명	2(9.5)	<b>36(37.5)</b>	<b>19(35.8)</b>	<b>57(33.5)</b>
	11~15명	3(14.3)	20(20.8)	15(28.3)	38(22.4)
	16~20명	<b>8(38.1)</b>	7(7.3)	7(13.2)	22(12.9)
	21~30명	2(9.5)	12(12.5)	3(5.7)	17(10.0)
	31~50명	0(0.0)	9(9.4)	4(7.5)	13(7.6)
	51~121명	1(4.8)	2(2.1)	3(5.7)	6(3.5)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sup>a</sup>공격성 외 분노, 비행, ADHD, 학교폭력 가해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포괄함<sup>b</sup>사회측정법, 교우관계검사 등을 사용하여 배척아동을 포함

### 3) 실험집단의 일정과 관련된 특성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총 회기 수, 1회기 소요시간 및 실험처치 간격에 따른 분포를 연령별로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총 회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은 11~14회기가 47.6%(10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8~10회기(19%)와 21회기 이상(19%)이 많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8~10회기가 각각 57.3%, 6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1~14회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마다 한 회기의 시간은 얼마나 길게 하는지 살펴보면, 40분 미만을 한 회기로 구성한 논문 5편 가운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4편이었고, 유아와 아동은 40~50분이 각각 50%, 52.6%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 70~90분이 가장 많았으며(31.9%), 100분 이상은 총 7편인데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프로그램 회기 소요시간을 짧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총 회기 수, 1회기 소요시간 및 실험처치 간격 빈도(%)

변인	구분	연령범주			전체
		유아	아동	청소년	
총 회기 수	5~7회기	0(0.0)	2(2.1)	3(5.7)	5(2.9)
	8~10회기	4(19.0)	<b>55(57.3)</b>	<b>34(64.2)</b>	<b>93(54.7)</b>
	11~14회기	<b>10(47.6)</b>	28(29.2)	13(24.5)	51(30.0)
	15~20회기	3(14.3)	8(8.3)	3(5.7)	14(8.2)
	21~45회기	4(19.0)	3(3.1)	0(0.0)	7(4.1)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1회기 소요시간	40분 미만	4(22.2)	1(1.1)	0(0.0)	5(3.1)
	40~50분	<b>9(50.0)</b>	<b>50(52.6)</b>	12(25.5)	<b>71(44.4)</b>
	60분	5(27.8)	30(31.6)	13(27.7)	48(30)
	70~90분	0(0.0)	14(14.7)	<b>15(31.9)</b>	29(18.1)
	100~180분	0(0.0)	0(0.0)	7(14.9)	7(4.4)
	계	18(100)	95(100)	47(100)	160(100)
실험처치 간격	주 1회	3(14.3)	13(14.3)	19(40.4)	35(22.0)
	주 2회	<b>12(57.1)</b>	<b>65(71.4)</b>	<b>25(53.2)</b>	<b>102(64.2)</b>
	주 3~5회	6(28.6)	13(14.3)	1(2.1)	20(12.6)
	주 10회	0(0.0)	0(0.0)	2(4.3)	2(1.3)
	계	21(100)	91(100)	47(100)	159(100)

표 4에서 실험집단이 얼마나 자주 프로그램의 처치를 받는지 살펴본 결과, 총 159편 가운데 주 2회가 가장 많았고(64.2%), 그 다음으로 주 1회(22%)가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유아, 아동, 청소년 모두 주 2회가 가장 많았으나, 특히 아동이 71.4%(65편)로 유아(57.1%)와 청소년(53.2%)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주 2회 다음으로 유아는 주 3~5회(28.6%), 청소년은 주 1회(40.4%)가 많았으며, 아동은 주 1회와 주 3~5회가 각 13편(14.3%)씩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프로그램의 처치 간격을 짧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2.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처치 방법에 따른 특성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적용된 이론적 접근, 매체 활용,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 그리고 공격성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측정된 공격성의 형태 및 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성 유무에 대한 분포를 연령별로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처치 방법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 1) 이론적 접근에 따른 분포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38편의 논문이 특정 이론적 접근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이 16편(4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지·정서·행동 프로그램으로 15.8%(6편)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인지, 정서, 행동 접근을 사용한 논문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명상 프로그램 총 5편(13.2%) 가운데 2편은 유아 대상이고, 3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외 계슈탈트와 현실요법이 각각 3편이며, 해결중심 프로그램이 2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접근들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대상관계이론, 행동수정 및 개인심리학 접근의 프로그램이 각 1편씩 실시되었는데, 이들 모두 아동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격성 예방 및 증재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근거한 연구들의 참여자는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이며, 인지, 정서, 행동적 접근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이론적 접근에 따른 분포

빈도(%)

이론적 접근	연령범주			전체
	유아	아동	청소년	
인지·행동	0(0.0)	<b>9(50.0)</b>	<b>7(38.9)</b>	<b>16(42.1)</b>
인지·정서·행동	0(0.0)	3(16.7)	3(16.7)	6(15.8)
명상	<b>2(100)</b>	0(0.0)	3(16.7)	5(13.2)
계슈탈트	0(0.0)	2(11.1)	1(5.6)	3(7.9)
현실요법	0(0.0)	0(0.0)	3(16.7)	3(7.9)
해결중심	0(0.0)	1(5.6)	1(5.6)	2(5.3)
대상관계이론	0(0.0)	1(5.6)	0(0.0)	1(2.6)
행동수정	0(0.0)	1(5.6)	0(0.0)	1(2.6)
개인심리학	0(0.0)	1(5.6)	0(0.0)	1(2.6)
계	2(100)	18(100)	18(100)	38(100)



## 2) 매체 및 보조자료 활용별 분포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활용된 매체나 보조자료별 분포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2편 이상의 논문에서 활용된 매체 및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58편 가운데 놀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34.5%(20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독서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18편(31%)이며, 미술을 활용한 논문이 11편(19%)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 외 음악, 영화와 애니어그램 등을 활용한 논문이 각 5편 이내로 나타났으며, 1개 빈도가 산출된 프로그램으로는 통합예술, 신문활용, 이야기치료, 차문화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은 특수한 매체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유아의 경우 놀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42.9%(6편)로 가장 많았고, 아동의 경우에는 놀이와 독서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각각 39.3%(11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매체나 보조자료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의 논문들은 미술, 놀이, 음악, 독서, 영화, 애니어그램 등이 각각 2~4편까지 끌고루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아 대상 논문 총 21편 가운데 매체나 보조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14편(66.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아동 대상 논문 96편 대비 28편(29.2%)과 53편의 청소년 대상 논문 가운데 16편(3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sup>3)</sup>.

<표 6> 매체 및 보조자료 활용에 따른 분포 빈도(%)

매체 및 보조자료	연령범주			전체
	유아	아동	청소년	
놀이 <sup>a</sup>	<b>6(42.9)</b>	<b>11(39.3)</b>	3(18.8)	<b>20(34.5)</b>
독서	5(35.7)	<b>11(39.3)</b>	2(12.5)	18(31.0)
미술	3(21.4)	4(14.3)	<b>4(25.0)</b>	11(19.0)
음악	0(0.0)	2(7.0)	3(18.8)	5(8.6)
영화	0(0.0)	0(0.0)	2(12.5)	2(3.4)
애니어그램	0(0.0)	0(0.0)	2(12.5)	2(3.4)
계	14(100)	28(100)	16(100)	58(100)

<sup>a</sup>놀이치료, 짝놀이, 게임, 치료놀이 등이 포함됨

## 3)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별 분포

공격성 감소를 위해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2편 이상의 논문에 적용된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sup>4)</sup>. 총 94편 가운데

3) 유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각각 21편, 96편, 53편임(표 2 참조)

분노조절을 통한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35.1%(33편)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공격성 및 학교폭력예방이 17편(18.1%), 용서교육 7편(7.4%), 정서조절 6편(6.4%), 공감훈련 5편(5.3%), 자기표현훈련 4편(4.3%), 주장훈련과 인간관계훈련이 각 3편(3.2%)으로 나타났다. 이외 사회적 기술 향상, 자기조절, 사회적 관심 증진, 의사소통훈련, 배려증진, Think aloud, 품성계발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각 2편씩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유아의 경우 분노조절, 정서조절 및 자기조절 프로그램이 각 2편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전체 59편 가운데 37.3%(22편)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공감훈련, 주장훈련, 사회적 관심 증진, 의사소통훈련, 배려증진, Think aloud, 품성계발 등은 아동에게만 실시된 프로그램들이다. 청소년은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해 복합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통합적 성격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논문이 10편(37%)으로 가장 많았고, 분노조절 프로그램도 33.3%(9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공격성은 다차원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므로 공격성 감소를 위한 중재에도 다양한 처치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에서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가 보다 다양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표 7>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에 따른 분포 빈도(%)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	연령범주			전체
	유아	아동	청소년	
분노조절	2(25.0)	22(37.3)	9(33.3)	33(35.1)
공격성 및 학교폭력예방	0(0.0)	7(11.9)	10(37.0)	17(18.1)
용서교육	1(12.5)	3(5.1)	3(11.1)	7(7.4)
정서조절	2(25.0)	3(5.1)	1(3.7)	6(6.4)
공감훈련	0(0.0)	5(8.5)	0(0.0)	5(5.3)
자기표현훈련	0(0.0)	2(3.4)	2(7.4)	4(4.3)
주장훈련	0(0.0)	3(5.1)	0(0.0)	3(3.2)
인간관계훈련	0(0.0)	1(1.7)	2(7.4)	3(3.2)
사회적 기술 향상	1(12.5)	1(1.7)	0(0.0)	2(2.1)
자기조절	2(25.0)	0(0.0)	0(0.0)	2(2.1)
사회적 관심 증진	0(0.0)	2(3.4)	0(0.0)	2(2.1)
의사소통훈련	0(0.0)	2(3.4)	0(0.0)	2(2.1)
배려증진	0(0.0)	2(3.4)	0(0.0)	2(2.1)
Think aloud	0(0.0)	2(3.4)	0(0.0)	2(2.1)
품성계발	0(0.0)	2(3.4)	0(0.0)	2(2.1)
계	8(100)	59(100)	27(100)	94(100)

4) 논문 각 1편에 적용된 처치 프로그램은 토래상담자, 스트레스 대처훈련, 자아탐색, 친사회성 증진, 자기성장, 부모교육, 멘토링, 칭찬활동, 리더십, 진로상담, 토래지지중심 등이 있었다.

#### 4) 공격성의 측정방법, 공격성의 유형 및 프로그램의 효과 유무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보기 위해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한 공격성의 유형,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총 170편 가운데 대다수의 논문(91.8%)이 공격성을 측정하는 데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관찰을 사용한 논문은 5편(2.9%)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한 논문은 9편(5.3%)이었다. 유아, 아동, 청소년 모두 설문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은 90% 이상이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 21편 가운데 15편(71.4%)이 설문조사를 활용하였고, 관찰 방법이 포함된 논문은 6편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처치를 통해 감소시키고자 하는 공격성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 언어 및 물리적 형태를 포함하는 외현적 공격성만을 측정하여 효과를 검토한 논문이 대다수(98.2%)를 차지하였다. 외현적 형태와 함께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을 포함시킨 논문은 총 2편(1.2%)에 불과하였고, 각 1편씩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공격성 감소의 효과가 유의미한 논문이 전체의 82.4%(140편)이고,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논문은 7.1%(12편)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이론적 접근, 매체 및 처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논문의 대부분이 공격성 감소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공격성 측정방법, 공격성의 유형 및 프로그램의 효과 빈도(%)

구분	항목	연령범주			전체
		유아	아동	청소년	
공격성 측정방법	설문조사	15(71.4)	89(92.7)	52(98.1)	156(91.8)
	관찰	2(9.5)	3(3.1)	0(0.0)	5(2.9)
	설문조사+관찰	4(19.0)	4(4.2)	1(1.9)	9(5.3)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공격성 유형	외현적 공격성	21(100)	95(99.0)	51(96.2)	167(98.2)
	외현적 공격성+관계적 공격성	0(0.0)	1(1.0)	1(1.9)	2(1.2)
	보고 안함	0(0.0)	0(0.0)	1(1.9)	1(0.6)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프로그램 효과	유의미	16(76.2)	78(81.3)	46(86.8)	140(82.4)
	무의미	0(0.0)	7(7.3)	5(9.4)	12(7.1)
	검증 안함	5(23.8)	11(11.5)	2(3.8)	18(10.6)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내에서 수행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 176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및 처치 방법과 관련한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격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고, 대부분 석사학위논문에서 다루어졌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뿐 아니라 아동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 광범위한 연구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온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에서 주요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을 크게 연구참여자, 실험집단의 구성 및 실험집단의 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 여학생 모두를 포함시킨 연구가 전체의 63.6%를 차지하였고,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21%로, 여학생만 참여한 논문 5.7%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공격성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개입이 남학생에게 보다 집중된 것은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에게 더욱 인식되기 쉬운 형태인 외현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김민정, 도현심, 2001; Archer, 2004; Xie et al., 2005), 공격성 감소에 대한 개입 대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지목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초등학생이 과반수 이상(54.5%)을 차지하였고, 중학생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21%), 유아 대상의 논문은 전체의 11.9%이었다. 유아기 동안 신체적 공격성의 발생이 아동 및 청소년기 보다 빈번하며 유아기 공격성이 이후 발달단계까지 지속됨을 감안하면(Côté et al., 2006),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많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부모를 참여시킨 연구는 3편(1.7%)에 불과하였는데, 아동과 함께 부모 훈련을 포함시켰을 때 아동만 참가하였을 때보다 프로그램의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Webster-Stratton & Hammond, 1998),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를 참여시키는 데 비교적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어릴수록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중요한 맥락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므로 다학문적 접근이 유용한데, 교사를 참여시킨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학급 내 공격행동이나 또래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및 지도감독이 또래괴롭힘과 같은 공격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들(박미연, 2000; Lee, Buckthorpe, Craighead, & McCormack, 2008)이 중재 프로그램에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이 모집된 출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일반집단을 통한 표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79.5%). 이러한 결과는 연구참여자의 접근성이 쉬운 것도 연구의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한다.

둘째, 실험집단을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는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을 선발하고 있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58.2%)을 차지하고 있으나, 유아들은 일반집단의 비율(52.4%)이 공격성이 높은 집단의 비율(47.6%)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은 공격성 고수준 집단이 각각 53.1%, 71.7%로 일반집단보다 많았으나, 아동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 수준이 높은 대상을 더 많이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예방 차원의 중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을 선발하는 방법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고(80.8%),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교사나 보호관찰관의 추천으로도 선발되었다(16%).

실험집단의 크기는 유아는 16~20명, 아동과 청소년은 6~10명으로 구성된 논문이 가장 많았다. 연령이 어릴수록 교사의 학생 통제능력을 고려하여 집단의 크기가 작은 것이 보통인데(Gazda, 1989), 유아의 경우 16~20명이 가장 많게 나타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한 반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셋째, 실험집단의 일정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총 회기 수는 전체적으로 8~10회기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11~14회기가 많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8~10회기가 가장 많았고, 유아는 11~14회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5~7회기 만큼 짧거나 21회기 이상을 진행한 경우는 각각 2.9%와 4.1%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회기를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는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격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긴 회기가 요구되지만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서비스되기 보다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회기당 소요시간은 청소년은 70~90분이 가장 많았고, 유아와 아동은 40~50분간 진행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험처치 간격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주 2회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주 2회 다음으로 유아의 경우 주 3~5회가 많았고, 아동은 주 1회와 주 3~5회가 동일하게 많았으며, 청소년은 주 1회의 실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프로그램 총 회기 수는 길지만, 연령에 따른 주의집중 시간이 고려되어 회기 소요시간은 짧게 진행하고 있고, 집단은 보다 자주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다(강진령, 연문희, 2009).

다음으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처치 방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연구들마다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근거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이론적 접근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한 논문은 2편인데, 모두 명상 프로그램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은 이론적 접근 중 인지, 행동, 정서적 접근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계슈탈트, 해결중심 등 보다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공격성의 예방보다는 치료 목적에서 더 많이 수행된

점을 감안할 때, 연구자마다 지향하는 이론적 접근에 따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프로그램에 사용된 매체 및 보조자료를 살펴보면, 유아와 아동의 경우 놀이와 독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청소년은 미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매체가 가지는 특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은 미술 외에도 놀이, 독서, 음악, 영화, 에니어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골고루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령별로 전체 논문 대비 매체나 보조자료를 사용한 논문의 비율에서 유아 대상의 논문이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매체 활용이 많은 것을 나타내준다.

셋째,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을 통한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얻으려는 논문이 가장 많았다. 이는 공격성의 위험요인으로 높은 분노 수준 및 분노조절력 부족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이혜련, 김경연, 2008; 정연희, 2006; 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Reiser, Murphy, Losoya, & Guthrie, 2001), 분노를 조절하는 중재가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외 정서조절, 용서교육, 공감훈련, 자기표현훈련, 의사소통훈련 등 다차원적 요소를 아우르고 있어 공격성 감소를 위해 매우 광범위한 처치 개입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청소년의 경우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구성한 공격성 및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이 다차원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서미정, 2011; 윤혜미, 박병금, 2005; Martino et al., 2008)이 반영되어 개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연구자에 따라 관심의 초점이 다르다해도 전반적으로는 생태학적 접근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두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소수의 연구에서 관찰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유아가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관찰법 사용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설문조사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인지적 능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관찰법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초점을 둔 공격성의 유형은 유아, 아동 및 청소년 모두 외현적 공격성이 대부분이었고,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입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각 1편씩만 이루어져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외현적 공격성이 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형태인 관계적 공격성에 비해 타인의 눈에 잘 띄게 되므로 개입의 필요성 또한 외현적 공격성이 더욱 크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추후 공격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 현장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균형있는 확대가 요구된다. 즉 여학생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공격성의 예방 차원에서 학령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연구가 보다 많이 활성화 되어야 겠으며, 환경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

하여 부모 참여를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격성의 감소에 보다 다각적인 개입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가 중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음을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적 개입 차원에서 부모와 교사뿐 아니라 또래를 통한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또래를 참여시킨 프로그램이 한편도 없었지만 공격행동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 주변또래가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침묵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으므로 또래 집단을 포함시키는 개입 방안에 대한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서미정, 2006).

둘째, 본 연구의 결과들이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또래괴롭힘 등 보다 심각한 공격행동의 예방을 위한 관련 정책에 기초자료로 제공된다고 기대할 때 연구참여자 표집의 편향을 줄이고 균형있는 표집이 요구된다. 즉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정방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관찰법을 활용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교사나 또래 등 외부의 관찰을 설문조사와 함께 병행하는 등 연구방법론적 다양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외현적,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은 서로 구별되며 각각이 연결되는 부적응 변인들이 다름을 고려하면(서미정, 2011), 관계적 공격성의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도 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계적 공격성은 학령 전기에 비해 아동 후기에 더욱 현저히 나타나므로(서미정, 2012; Björkqvist, 1994; Côté et al., 2007; Karriker-Jaffe et al., 2008),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이고 조기 개입 차원에서 유아기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처럼 본 연구는 최근 13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청소년에게 실시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둔 선행 연구(유수정, 2011)를 확장하여, 그 동향을 파악한 데 의의가 있다. 게다가 공격성 예방 및 감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한 점이 실용적 의의라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논문들의 연구방법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효과의 유의미성 여부만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어떤 처치 특성 및 처치 방법이 더 큰 효과크기를 보여주는지 등 연구결과의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을 국내 연구물에 한정함으로써 국외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안목에서 연구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들의 동향도 함께 파악하여 국내와 국외 프로그램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표시된 참고문헌은 동향분석에 포함된 연구임.

강명숙(2007). 아동의 공격성에 관련된 위험요인 및 예방·처치 프로그램 고찰. **유아교육**, 16(3), 57-68.

강진령, 연문희(2009). **학교상담 - 학생생활지도-**. 파주: 양서원.

\*고선옥, 전경아(2010). 리더십 독서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61, 133-152.

김동기, 홍세희(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김민호(2009).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주영(2011). 보호관찰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와 분노 조절을 위한 인지행동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김지영(2011).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행동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국제대학교.

김지현(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노언경, 홍세희(2009). 준모수적 집단 중심 방법을 적용한 청소년기 초기의 공격성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관련요인 검증. **조사연구**, 10(3), 37-58.

\*류순정(2010). 학급단위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민중의 소리(2013). 경북서 또 학교폭력 자살... '학교폭력 근절' 구호 무색.

<http://www.vop.co.kr/A00000608980.html>

박미연(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미정(2006). 또래괴롭힘 완화요인의 탐색 - 주변또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서미정(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성취감 : 잠재성장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서미정(2010).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성장혼합모형의 적용. **아동학회지**, 31(3), 83-97.

서미정(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3), 143-162.

서미정(2012).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 및 고위험 변화집단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38, 157-186.

서미정(2013).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과 일탈적 자아낙인의 관계 -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성별 다집단 분석 -. **한국아동복지학**, 41, 161-183.

\*안자은(2006). 분노조절훈련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창의력개발연구**, 9, 79-95.

유수정(2011).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윤혜미, 박병금(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133-164.

\*이동진, 채수경(2010).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시설유아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4(3), 57-73.

\*이정숙, 정은선, 김경선, 박지영, 박희애, 서보람(2008). 사회기술향상 집단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유아의 사회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3(2), 19-40.

\*이정혜(2004). 대상관계이론에 근거한 아동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이혜련, 김경연(2008).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조절전략, 분노조절정도간 관련성. **대한 가정학회지**, 46(8), 27-36.

정연희(2006). 공격성향자들의 정서적 특징 - 부적 정서 사건에 대한 분노 반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정이원(2010). 인지행동적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정서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조선일보(2012). 대구, 또 학교폭력 자살... “꼭 별 주세요” 유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4/201206040008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4/2012060400086.html).

주지영(2005).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3).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최운선(2005). 학교폭력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2), 95-111.

- 한유진(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허승희, 최태진(2008). 초등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과 그 효과(I): 가해 성향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연구*, *21*(3), 175-197.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4), 291-322.
- Archer, J., & Coyne, S. M. (2005). An integrated review of indirect, relational, and soci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0*, 272-274.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 Björkqvist, K. (1994). Sex differences in physical, verbal, and indirect aggressio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Sex Roles*, *30*, 177-188.
- Björkqvist, K., Ekman, K., & Lagerspetz, K. (1982). Bullies and victims: Their ego picture, ideal ego picture, and normative ego pictur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3*, 307-313.
- Björkqvist, K., Lagerspetz, K. M. J., & Kaukiainen, A. (1992). Do girls manipulate and boys fight? *Aggressive Behavior*, *18*, 117-127.
-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2), 179-192.
- Brook, J. S., Whiteman, M., Finch, S., & Cohen, P. (1996). Young adult drug use and delinquency: Childhood antecedents and adolescent mediat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Abnormal Psychiatry*, *35*, 1584-1592.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Ferguson, L. L., & Gariépy, J.-L. (1989). Growth and aggression: 1.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20-330.
- Card, N. A., Isaacs, J., & Hodges, E. V. E. (2007). Correlates of school victimization: Recommend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J. E. Zins, M. J. Elias, & C. A. Maher(Eds.),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er harassment: A handbook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pp. 339-366). New York: Haworth Press.
- Card, N. A., Stucky, B. D., Sawalani, G. M., & Little T. D. (2008).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tercorrelations, and relations to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5), 1185-1229.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pp. 779-862). New York: Wiley.
- Côté, S. M., Vaillancourt, T., Barker, E. D., Nagin, D. S., & Tremblay, R. E. (2007). The joint development of physical and indirect aggression: Predictors of continuity and change during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1), 37-55.
- Côté, S. M., Vaillancourt, T., LeBlanc, J. C., Nagin, D. S., & Tremblay, R. E. (2006). Th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pre-adolescence: A nation wide longitudinal study of Canadia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1), 71-85.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588.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odge, K. A., Coie, J. D., & Lynam, D. (2006).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719-788). New York: Wiley.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Farrell, A. D., Sullivan, T. N., Esposito, L. E., Meyer, A. L., & Valois, R. F. (2005).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ggression, drug us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their interrelations over time in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2), 179-204.
- Gazda, G. (1989). *Group counseling*. Boston: Allyn & Bacon.
- Greenberg, K. R. (2003). *Group counseling in K-12 schools: A handbook for school counselors*. Boston, MA: Pearson Education.
- Karriker-Jaffe, K. J.,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0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among youth in rural area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8), 1227-1236.

- Ladd, G. W. (2005).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social competence: A century of progres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ee, C., Buckthorpe, S., Craighead, T., & McCormack, G.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bullying in primary schools and children's views of their teachers' attitudes to pupil behavior. *Pastoral Care in Education, 26*(3), 171-180.
- Martino, S. C., Ellickson, P. L., Klein, D. J., McCaffrey, D., & Edelen, M. O. (2008). Multiple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adolescent boys and girls. *Aggressive Behavior, 34*(1), 61-75.
- Murray-Close, D., Ostrov, J. M., and Crick, N. R. (2007).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of relational aggression during middle childhood: Associations with gender, friendship intimacy, and internalizing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187-203.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school*. Washington, DC: Hemisphere.
- Royse, D., Thyer, B. A., Padgett, D. K., & Logan, T. K. (2001). *Program evaluation: An introduction* (3rd ed.). Belmont, CA: Brooks/Cole.
- Webster-Stratton, C., & Hammond, M. (1998). Conduct problems and level of social competence in Head-Start children: Prevalence, pervasiveness, and associated risk factors. *Clinical Child & Family Psychology Review, 1*(2), 101-124.
- Xie, H., Cairns, B. D., & Cairns, R. B. (2005).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s among girls: Measurement issues, social functions, and differential trajectories. In: Pepler D. J., Madsen, K. C., Webster, C., Levene, K.S.(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Girlhood Aggression*. Mahwah, NY: Erlbaum, pp 105-136.

\* 논문접수 2014년 2월 11일 / 1차 심사 2014년 3월 10일 / 2차 심사 2014년 4월 22일 / 게재승인 2014년 5월 26일

\* 서미정: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 전공으로 가정학석사와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상담부에서 상담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2011)' 등이 있다.

\* E-mail: bella2001@pusan.ac.kr

## Abstract

## Trends and Issues in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Seo, Mijung\*\*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provide a review of research and to address future issues in the area of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Particularly, the study focused on reviewing interventional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methodological factors in research. The comprehensive review includes 176 studies,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12, of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during early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regard to participants, boy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general populations such as kindergarten and school were much more. In addition to total sessions and time per sess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age. Second, in regard to treatment methods,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used various theoretical approaching, supplementary tools, and treatment contents. Also, observation for preschoolers and surve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more used. Most programs focused on decreasing overt aggression. Issues related to Korean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research trends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09-353-C00078]

\*\* First author(Corresponding author), Staff Therapis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